

레바논의 '골 넣는 수비수'
알 사디 프리킥을 경계하라

오늘 밤 고양서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

"레바논의 골 넣는 수비수 알 사디의 오른발을 경계하라"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2일 밤 8시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레바논과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레바논에게 3차전에서 일격을 당한 바 있다. 또 다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알 사디(26)의 오른발을 경계해야 한다. 알 사디는 수비수이지만 정교한 오른발 킥을 자랑한다. 185cm의 키로 재공권도 갖춘 알 사디는 프리킥과 헤딩이 좋은 국가대표팀의 골키퍼(31·울산현대)와 플레이어가 많이 닮아 있다. A매치 31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이다.



레바논의 골 넣는 수비수 알 사디

1-1로 비길 수 있었다. 알 사디는 지난 11월 3차예선에서 한국을 무너뜨리는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이루트에서 열린 경

기에서 전반 4분 만에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 당시 1-2 패배의 충격을 당한 대표팀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알 사디는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는 지난 3일 카타르와의 A조 1차전에서는 선발에서 제외돼 벤치를 지켰다. 대표팀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김보경이 왼쪽 사이드를 돌파할 때 흥미로운 맞대결이 기대된다. 상승세인 김보경이 알 사디 돌파에서는 충분히 제압할 것으로 기대된다.

1무 1패를 기록 중인 레바논은 한국에 패할 경우, 월드컵 본선 진출이 멀어진다. 수비에 치중하면서 역습을 펼치는 전략이 예상된다. 알 사디 외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알바스 아트위, 스트라이커 하산 마투크 등도 조심해야 한다. 아트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었고, 마투크는 3차예선에서 3골을 기록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토레스의 골욕 11일(한국시각) 열린 유로2012 C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기. 스페인 토레스가 드리블하고 있는 볼을 이탈리아 골키퍼 부폰이 손이 아닌 발로 인터셉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밀튼 캐나다 그랑프리 1위
F1, 7연속 다른 우승자 배출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캐나다 대회에서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튼(영국)이 우승을 차지해 올 들어 F1 역사상 유례없이 7번 연속 모두 다른 우승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F1 캐나다 대회 우승자 해밀튼.

해밀튼은 지난 10일 캐나다 질 빌너브 경주장에서 벌어진 캐나다대회 결선에서 1시간32분29초586으로 주행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해밀튼은 총 88점으로 종합 순위 1위로 올라섰다. 페라리의 알론소(86점)로 2위로 내려앉았고 뒤를 이어 레드불의 페틸과 웨버가 85점, 79점으로 각 3, 4위를 기록했다.

예선 2위로 출발한 해밀튼은 로망 그로장(프랑스·로터스)과 세르지오 페레즈(멕시코·자우버)의 추격을 따돌렸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그로장은 바레인 대회를 포함해 올해 2번째로 포디움(시상대)에 올랐다.

3위는 세르지오 페레즈가 차지했다. 지난 말레이시아대회에서 깜짝 준우승을 했던 페레즈는 예선 15위로 출발했지만 특유의 타이어 관리 능력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시상대에 합류했다.

예선 1위(폴포지션)로 출발한 레드불의 세바스찬 페텔(독일)은 4위를 기록했고, 5위는 페르난도 알론소(스

페인·페라리), 6위는 니코 로즈버그(독일·메르세데스)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모나코 대회 우승자인 웨버(호주·레드불)는 7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이 8위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8번째인 유럽대회는 오는 24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며, 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 최고 선수는 꼭대위
K리그 감독·주장 선정

국가대표 수비수 꼭대위(울산현대)가 K리그 16팀 감독과 주장이 뽑은 최고의 선수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2 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 2012'에 출전할 선수 선정을 위해 K리그 16팀 감독과 주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꼭대위는 투표 참여인원 32명 가운데 23명(감독 13표, 주장 10표)의 추천을 받아 감독과 선수가 모두 인정하는 '최고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꼭대위는 지난 9일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헤딩으로 역전골을 뽑아냈다. 지난해 울산의 K리그 준우승을 이끌어 생애 최초로 K리그 시즌 베스트 11(수비부)에 포함되기도 했다.

최고의 선수 2위는 의견이 갈렸다. 감독이 뽑은 2위는 12명이 추천한 데안(FC서울)이고, 주장들이 선정한 2위는 8명이 지명된 이동국(전북 현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축구 연맹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손에 땀 진 90분' 명품축구의 진수

C조 스페인-이탈리아 1대1 무승부
선수 기량·감독 전술 '최고의 한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1일 새벽(한국시각) 폴란드 그단스크 아레나 구장에서 열린 '유로2012' C조 1차전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무승부였지만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멋진 한판이었다. 두 팀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축구로 화려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대결은 흔히 창과 방패의 대결로 압축된다. 패스라는 최고의 창을 가진 스페인의 보스케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가짜 공격수'로 배치하는 제로톱 전술. 파브레가스를 최전방에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섯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4-6-0의 포메이션이다. 패스 플레이로 이탈리아의 빗장수비를 뚫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맞서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감독은 스리백을 들고 나왔다. 중앙 수비수를 3명 배치해 빗장을 걸고 좌우 윙백을 활용하는 사실상 파이어브릭 전술이다. 강력한 대인방어, 효과적 인 간격 유지, 상대 움직임에 따른 부분 압박. 진화된 카테나치오로 스페인의 패스 플레이에 맞섰다.

스페인인 짧은 패스, 이탈리아는 긴 패스로 경기를 풀어 나갔다. 이탈리아의 중원 사령탑 피롤로는 환상적인 패스를 여러차례 연결하며 공격을 조율했고 카사노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스페인의 문전을 위협했다. 반면 스페인은 이니에스타와 사비 두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패스 플레이를 펼쳐 이탈리아의 단단한 수비진을 흔들어나갔다. 특히 이니에스타는 감각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 등을 연발하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불리는 양팀의 주장 카시야스와 부폰의 선방도 눈부셨다. 전반전 슈팅 수 스페인 7대 이탈리아 6에 유효슈팅 4대 2.

골은 후반에 터졌다. 이탈리아는 후반 11분 발로텔리를 빼고 디 나탈레를 투입했다. 그리고 5분 뒤 피롤로의 스투 패스를 받은 디 나탈레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문전으로 달려 들어 카시야스와 일대일 상황에서 환상적인 마무리 슈팅을 꽂아 넣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기쁨도 잠시. 3분 후 스페인이 곧바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니에스타와 실바를 거친 논스톱 패스가 수비 배후로 빠져든 파브

레가스에 연결됐다. 파브레가스로 부폰과 일대일 기회에서 깔끔한 마무리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디 나탈레와 파브레가스의 골보다 피롤로와 실바의 패스가 더 명품이었다.

벤치의 지략 싸움도 대단했다. 프란체스코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에 후반에 들어 부진하던 발로텔리를 빼고 디 나탈레를 투입해 공격에 변화를 모색했다. 디 나탈레는 곧바로 선제골을 넣으며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다. 보스케 스페인 감독도 윈어 나바스와 토레스를 투입해 측면과 지친 이탈리아 수비진의 뒷 공간을 노렸다. 나바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공격의 활로를 열어 나갔고 토레스 역시 두 차례 골키퍼와 단축으로 맞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하지만 토레스가 마무리에서 문제점을 노출해 득점에 실패했다. 명승부는 끝났다. 1대 1 무승부. 볼 점유율 스페인 66% 이탈리아 34%. 슈팅수는 19대 11. 승자와 패자는 없지만 선수들의 수준 높은 기량과 감독의 뛰어난 전술, 실 새 없는 양팀의 치열한 공방은 9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흥분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경기 MOM은 스페인의 '창' 이니에스타와 이탈리아 '방패' 데로시.

한편 이어 벌어진 C조 크로아티아와 아일랜드의 경기는 만주키치가 2골을 넣은 크로아티아가 3-1로 승리했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서 접수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MILLET | 주관: Mtour
후원: 65 광주일보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매/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